

엘리야가 오리라



세례 요한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설명하시면서 예슈아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예언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열쇠를 주셨습니다.

마 11:14 – "...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슈아께서는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말 4:5)"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라기서 종반에 있는 예언을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엘리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환생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은 엘리야와 동일한 부르심과 기름부으심을 가지고 온,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눅 1:17 –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그러니까 아직 주님의 심판의 "크고 두려운 날" 전에 와야 할 "세 번째" 엘리야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닌, 완전히 다른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과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그에게는 예슈아의 재림까지 이어지는 마지막 때 사건들에 대하여 예언적 권세를 가질 것입니다.

● 엘리야가 직접?

기독교와 유대교에는 엘리야가 직접 다시 올 것이라는 비슷한 "민간 전승"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현혹적이고 성경의 패턴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상에서 자신의 시대를 마감한 다음,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을 계속하도록 엘리사에게 위임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사람들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 13:36**). 만약 옛 선지자들이 다시 오기를 기다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도록 부르신 일들을 놓칠 것입니다.

예슈아의 가르침은 성경 예언의 "3차원적" 성취 패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 **고대 이스라엘**, 2) **복음 시대의 초림**, 그리고 3) **마지막 때의 재림**. 고대 이스라엘에는 진짜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요한은 엘리야와 비슷한 심령을 가지고 복음 시대에 와서 예슈아의 초림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때 대환란 가운데 또 다른 예언적 인물(아니면 계 11:3-6에서와 같이 여러 명의 인물들)이 엘리야의 심령과 권능을 가지고 일어나 첫 엘리야의 시대에 그랬던

것과 같이 “하늘을 달아 비가 오지 않게” 할 것입니다. “3차원적” 성취 패턴은 이스라엘과 열방, 마지막 때에 관한 많은 예언들에서도 발견됩니다.

“검문소의 그리스도 Christ at the checkpoint” 컨퍼런스에 관한 특별 보고

-댄 저스터 Dan Juster



금년에 저는 대체 신학의 문제에 관한 강의를 하도록 초청 받았습니다. 휘튼 대학교 Wheaton College의 저명한 신약학 교수 개리 버지 Gary Burge 역시 발표를 하게 되어 있었고, 그 후에는 문답 시간을 갖게 되어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명예 중심의 문화를 유지하는 귀한 이들입니다. 그 컨퍼런스는 굉장한 질서와 전문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독교계에서 뽑혀 온 리더들 중에는 학자들과 유명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는 것에 대해 큰 저항이 있었지만, 제가 따르는 이스라엘의 리더십 팀이 저에게 갈 것을 독려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가 그저 “그리스도와 검문소”의 정치적 의제를 키우는 데에 이용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국의 어떤 이메일과 블로그에는 실제로 꽤 강도 높은 공격과 비난이 있었습니다.

CATC에 속한 사람들 중 일부는 정말로 기독교의 이스라엘 지지를 약화시키고자 하는, 아주 강력한 정치적 의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닉 유대인 공동체와의 실질적인 대화와 진정한 연합을 더 지향하고 있습니다.

강연을 하려고 일어서는데 제 몸이 떨리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처음으로 기름 부으심 아래의 떨림을 경험한 때라고 믿습니다.

● 어마어마한 고난

저는 팔레스타인 그리스도인들의 어마어마한 고난에 동일시하는 것으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유대인들 역시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은 민족이라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통으로부터 말미암은 신학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왜곡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고통은,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고통을 초래한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선택을 인정하지 않는 신학으로 향한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가 이 고통의 실체를 트라우마를 남긴 실제 사건들에 대한 반응에 근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학에 대한 항변의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에 근거를 둘 때에만 신학을 바르게 할 수 있으며, 모든 말씀은 원문의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충분히 짙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본문으로 강연을 한 다음, 로마서 11:29의 철회할 수 없는 은사와 부르심에는 이 땅에서의 사명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특히 기꺼이 유대인들과 평화롭게 살고자 할 경우에는 더욱이—형편 없게 대할 권리를 이스라엘에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다시 불러오실 것을 말씀하신 에스겔 36장도 읽었습니다.

- **많은 이들이 동의의 목소리를 내다**

강의 후 팔레스타인 그리스도인들이 각처에서 저에게 와서 그 강의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영향은 다과와 식사 중에 저와 시간을 가진 리더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저의 발표에 동의를 표했고 어떤 이들은 향후 컨퍼런스에서 대화를 더 발전시켜 가기를 원했습니다. 개리 버지 박사와의 관계도 아주 좋아 컨퍼런스가 끝난 후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컨퍼런스로부터 선한 것들이 나오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며 믿읍시다.

게이트웨이즈 학교 소식과 에스더 금식의 하이라이트

지난 주에 저희는 대단한 바베큐 파티로 사이프러스 Cyprus에서 예배와 강의, 교제로 3일간 모인 게이트웨이즈 학교를 마쳤습니다. 그런 다음 3월 13일에 저희 예배실에서 12시간 동안 에스더 금식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저희와 함께 이 기도회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합니다. 금년에는 이 기도회가 일반 근로일에 있었기 때문에 현지인들의 참여가 감소하기는 했지만, 저희는 금식에 큰 은혜가 있는 것을 경험했고 찬양과 집중적인 중보를 통해 역사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6월 3일 전야(이스라엘 시간)에 있을 샤부울(오순절) 철야 기도회에도 참여해 주십시오. 세부 사항은 추후에 공지하겠습니다.